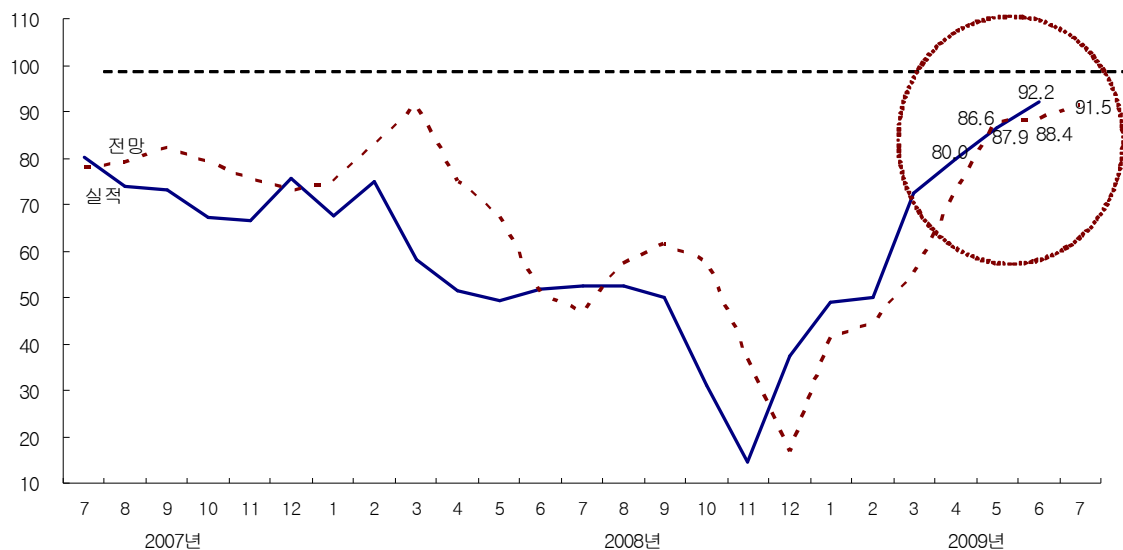


2009년 6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CBSI 6년 6개월만에 90선 회복. 단, 7월 전망지수가 91.5 불과해
SOC예산증액/조기집행 영향 지수 상승세 향후 주춤 예상

-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6월에도 전월 대비 5.6p 상승한 92.2를 기록해 6년 6개월만에 지수가 90선을 넘어섬. 그러나, 7월 전망지수가 91.5에 불과해 SOC예산증액 및 조기집행에 의한 지수 상승세는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6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5.6p 상승한 92.2를 기록함.
- 이로써 지수는 작년 11월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으며, 지난 5월 지수가 86.6을 기록해 2005년 6월(86.4) 이후 3년 11개월만에 85선을 회복한데 이어 6월에는 2002년 12월(102.0) 이후 6년 6개월만에 지수가 90선을 넘어섬.
- 6월 지수 상승은 지난 5월까지의 지수 상승과 마찬가지로 SOC 예산 증액 및 조기집행에 따른 공공공사 수주 증가현상이 계속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경기종합 BSI 추이 >



- 그러나 7월 지수 전망치가 6월 실적치보다 0.7p 하락한 91.5를 기록해 SOC예산증액 및 조기집행에 의한 지수 상승세가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SOC 예산 증액 및 조기집행 영향으로 하반기 공공공사 수주 및 기성의 상승세는 상반기에 비해 많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공사 수주 침체 및 미분양 주택 적체 사태도 하반기에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워 체감경기가 기준선인 100을 넘기까지 회복세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중견, 중소기업이 전월대비 각각 19.1p, 6.0p 상승한 반면, 지난 5월 기준선인 100을 넘어 가장 호조를 보였던 대형업체는 7.7p 하락한 92.3을 기록해 1개월만에 다시 기준선 아래로 하락함.

< 규모별·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08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52.3	50.1	31.1	14.6	37.3	48.9	50.0	72.3	80.0	86.6	92.2	88.4	91.5
구 분 별	대형	66.7	66.7	44.4	7.7	46.2	53.8	58.3	84.6	83.3	100.0	92.3	107.1	92.3
	중견	50.0	44.4	17.9	17.2	35.7	42.9	40.6	66.7	91.9	78.1	97.2	77.4	94.3
	중소	38.1	37.1	30.6	19.7	28.8	50.0	50.8	64.4	62.5	80.5	86.4	79.1	87.3
지 역 별	서울	62.6	57.8	33.6	9.8	41.0	49.2	50.9	78.0	89.7	97.5	93.9	98.7	94.6
	지방	33.7	38.3	26.7	22.3	31.6	48.4	48.5	63.8	65.0	66.5	83.6	69.6	81.2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중견업체는 그동안 대형, 중소기업에 비해서 지수 회복세가 늦어 상대적으로 지수가 가장 침체되었는데, 6월 들어 지수가 전월비 19.1p 상승한 97.2를 기록해 중견업체도 체감경기 회복이 본격화됨. 중견업체지수가 95선을 넘어선 것은 2002년 12월(97.7) 이후 6년 6개월만임.
- 중소기업 지수도 전월대비 6.0p 상승한 86.4를 기록했으며, 지수가 85선을 넘어선 것은 중견업체와 마찬가지로 2002년 12월(92.5)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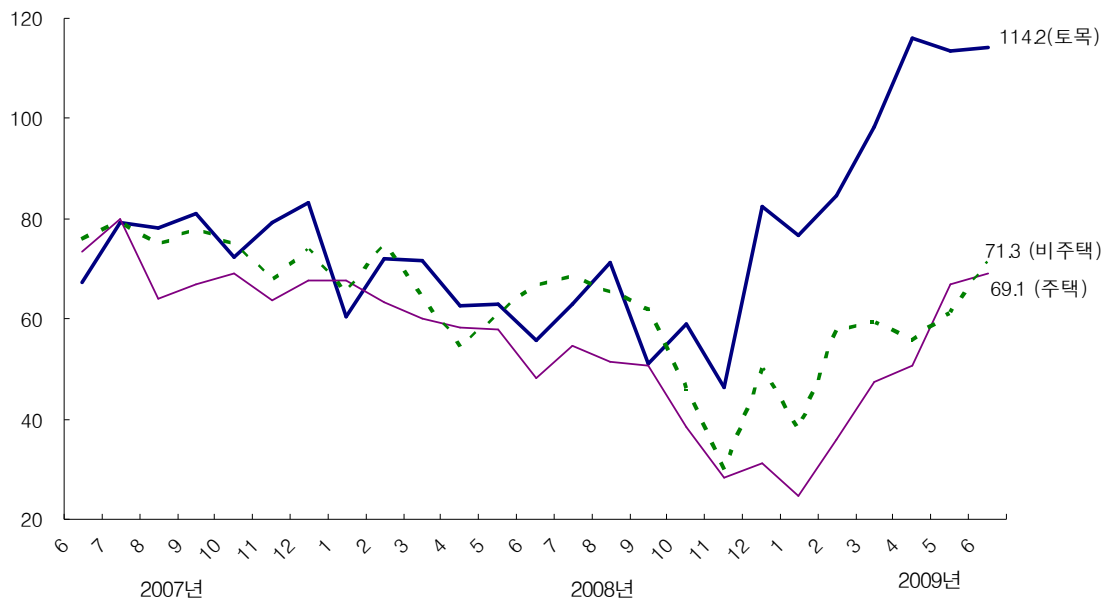
6년 6개월만임.

- 반면, 지난 5월 100.0을 기록해 1년 8개월만에 기준선인 100선을 회복했던 대형업체 지수는 6월에는 다시 전월대비 7.7p 하락한 92.3을 기록해 1개월만에 다시 기준선 아래로 하락함.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가 전월대비 3.6p 감소한 93.9 기록, 지방업체는 지수가 7.1p 증가한 83.6으로 지수가 5년 8개월 만에 80선을 넘음
 - 서울업체의 지수는 전월대비 3.6p 감소한 93.9로 서울지역의 대형업체들의 지수가 감소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
 - 지방업체의 지수는 전월대비 17.1p 증가한 83.6으로 200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지수가 80선을 넘음, 적체된 미분양 물량으로 여전히 지방 경기가 어렵지만, 최근 발주된 몇몇 공공물량이 지방업체의 수주를 늘린 것으로 판단됨.
- 2009년 7월 건설경기 전망 지수는 중소기업체는 경기가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았으나 대형업체와 중견업체는 각각 경기가 그대로 이거나 소폭 둔화(-2.9p)될 것으로 전망함
 - 업체 규모별로 전망 지수를 살펴보면 대형업체는 지수가 6월과 같은 92.3으로 예상하였으며, 중견업체는 지수가 2.9p 감소한 94.3을 기록할 것으로, 중소기업체는 지수가 0.9p 증가한 87.3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지역별로 서울업체는 지수가 1.0p 증가한 94.6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지방업체는 2.4p 감소한 81.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공사물량지수, 전 공종의 지수가 소폭(0.8~10.0p) 증가함에 따라
전월대비 4.6p 증가한 96.0 기록

- 공사물량 지수는 전월 대비 4.6p 증가한 96.0을 기록하였는데 토목물량 지수를 비롯한 전 공종에서 지수가 소폭 증가함.
 - 토목물량 지수는 SOC 예산 증액 및 조기집행 효과로 지난 5월에 이어 지수가 100선 이상인 114.2를 기록하였음.
 - 주택물량 지수는 전월대비 2.3p 상승했지만, 지수 자체는 69.1에 불과해 여전히 물량 침체 상황이 심각함.
 - 비주택물량 지수도 전월대비 10.0p 상승했지만, 지수가 71.3에 불과하여 경기침체로 인한 부진이 여전한 것으로 판단됨.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업체 규모별로 보면 대형업체의 지수가 감소하였으나 중소기업체의 지수가 전월과 같은 수준을 보인 가운데 중견업체의 지수가 증가함.
 - 대형업체의 경우 토목 물량지수가 전월보다 10.9p 증가(153.8기록)했으나 주택과 비주택 물량이 각각 전월보다 24.2p, 2.2p 감소한 61.5와 69.2를 기록하여 전체 물량지수가 전월 대비 22.0p 감소함(92.3기록)

- 중견업체의 경우 지수가 전월 대비 12.7p 증가한 94.3을 기록하였는데 토목 물량지수가 전월대비 12.9p 감소하였으나, 주택과 비주택 물량지수가 각각 전월보다 21.9p, 21.3p 증가함.
- 중소기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과 같은 수준(0.4p 감소)인 72.0을 기록하였는데 토목 물량지수가 전월보다 4.5p 증가하고, 주택과 비주택 물량지수가 각각 전월보다 11.2p, 11.4p 증가함.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96.0	115.4	97.1	72.0	108.2	73.2
	전망	92.2	92.3	102.9	80.0	99.8	75.6
토목	실적	114.2	153.8	100.0	83.8	128.6	81.7
	전망	102.6	115.4	106.1	83.5	115.0	79.6
주택	실적	69.1	61.5	84.4	60.6	70.7	59.9
	전망	68.0	53.8	83.9	66.7	68.3	60.2
비주택	실적	71.3	69.2	79.4	64.4	74.4	60.7
	전망	77.3	84.6	79.4	66.2	84.6	61.0

주 : 실적은 2009년 6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9년 7월 예측지수임.

- 서울업체가 전월 대비 4.3p 증가하고 지방업체도 전월 대비 9.7p 증가하였는데 중견업체의 비중이 큰 지방업체의 물량지수 증가폭이 더 컸으나, 서울과 지방의 지수가 각각 108.2, 73.2로 서울업체는 호조를 보인 반면 지방업체는 물량 침체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업체의 경우 토목과 주택 물량지수가 5월보다 각각 3.4p, 7.0p 증가하였으며 비주택 물량도 2.5p 증가하여 전체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4.3p 증가한 108.2를 기록함.
- 지방업체의 경우도 토목과 주택, 비주택 물량 지수가 각각 4.4p, 13.7p, 19.9p 증가하여 전체 물량지수가 전월보다 9.7p 증가한 73.2를 기록함.
- 2009년 7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6월 실적치 보다 3.8p 감소한 92.2로 전망되었는데, 비주택 물량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토목과

주택물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토목 물량지수는 6월보다 11.6p 감소한 102.6로 물량이 다소 감소하지만 여전히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주택 물량지수는 6월보다 1.1p 감소한 68.0로 경기가 다소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비주택 물량지수는 6.0p 증가한 77.3로 침체상황이 다소 개선 될 것으로 전망됨.

**인력/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 관련 상황 여전히 어려움**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자재부문 수급이 여전히 양호한 가운데, 자금 상황도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으나, 자재비 상황이 작년 상반기 인상된 자재비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공공공사 수주 급증에도 불구하고 민간공사 수주가 저조해 국내 건설수주가 5월까지 전년동기비 여전히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112.9, 109.9를 기록하며 수급 상황이 여전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 지수도 95.5를 기록해 인력수급 상황이 양호함에 따라 인건비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자재비 지수가 78.9를 기록해 작년 상반기 급등한 자재비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사대금수급 지수는 공공부문의 선급금 지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월비 11.6p 증가한 104.3을 기록해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금조달 지수도 전월비 7.1p 상승한 96.7을 기록해 최악 상황은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금·인력·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 수금	실적	104.3	107.7	105.6	98.8	101.7	95.9
		전망	98.7	100.0	102.9	92.4	103.5	86.1
	자금조달	실적	96.7	115.4	83.3	90.0	97.4	83.0
		전망	92.2	100.0	88.6	87.3	97.6	78.9
인력	수급	실적	112.9	107.7	122.2	108.5	113.1	106.3
		전망	105.3	100.0	117.6	97.5	107.3	96.3
	인건비	실적	95.5	100.0	100.0	85.0	99.3	84.0
		전망	96.1	100.0	102.9	83.8	100.4	84.0
자재	수급	실적	109.9	107.7	111.1	111.3	108.8	105.2
		전망	109.2	107.7	108.6	111.5	107.2	105.3
	비용	실적	78.9	76.9	80.6	79.5	76.7	75.6
		전망	79.9	84.6	80.0	74.4	79.8	73.8

주 : 실적은 2009년 6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9년 7월 예측지수임.